

상상의 공동체, 부산의 마을 만들기와 문학 연구의 한 방향

- 스토리텔링을 통한 미학화와 탈미학화

윤 지 영*

차 례

- | | |
|-----------------------|---------------------------|
| 1. 서론 | 4. 마을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상상하기 |
| 2. 부산 문학 연구와 문화산업의 관계 | 5. 구술 담화로서 스토리텔링과 문학의 가능성 |
| 3. 마을 만들기 사업과 미학화의 뒷 | |
| | 6. 결론 |

국문초록

전지구적 자본축적이 심화되어 가는 시대적 변화가 던지는 문학연구와 교육의 의의와 가치에 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이 논문은 시작되었다. 부산의 문학 연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부산시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생 사업과 문화콘텐츠·스토리텔링 사업에 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먼저 부산시의 도시재생 사업 및 마을 만들기라는 공간기획이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개발과 연동되며 진행되는 양상을 검토하고 여

* 동의대학교 교수

기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 재생은 일상의 미학화, 팔호냉기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주민들은 마을재생 사업의 주체로 호명된 것 같지만 사실상 세계 자본에 종속될(subject to)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를 상상할 필요가 있다. 근대의 상상의 공동체, 네이션이 출현하는 것에 인쇄술-문자문화-소설이 기여했다면, 탈근대의 시대인 오늘날 새로운 상상의 공동체를 출현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매체-구술 문화-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스토리텔링의 주체들이 차이 속의 동일성을 읽어내고 동일성 속의 개별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론과 스토리텔링을 문화콘텐츠로 전유하는 방법론을 대략적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 범위의 확장은 국문학의 교수 내용을 실천과 미학이 융합된 새로운 방향으로 재구조화할 것이다.

주제어 : 지역재생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미학화, 상상의 공동체, 만들어진 전통, 구술성,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문학교육

1. 서론

최근의 급격한 사회 변화는 ‘문학과 사회’에 대한 오래된 고민을 다시 하게 만든다. 세계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심화, 그에 따른 대학과 인문학의 위상 변화 같은 탈지역적 문제들과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해 요청되는 각종 정책들, 마을재생 사업의 활성화 같은 지역적 문제 등이 성찰의 구체적인 동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은 부산이라는 문학 연구와 교육의 장에서 지역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관점을 모색하고, 문학 연구 및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학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하게 된 가장 직접적 요인은 국문

학이라는 학문과 학과의 위기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나치게 많은 대학과 지속되는 학령인구의 감소, 그리고 가속화되는 실업률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취업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문과나 국문학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으며, 국문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일제 강점기의 시를 배우고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전공과는 별개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분열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인문학 전공자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진로를 찾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았으며, 모두가 전공을 살려 진로를 찾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문학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았고, 취업이나 진로는 학생들 각자가 고민해야 할 몫이었을 뿐, 교수자는 각자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하면 충분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교수들은 이제까지 연구하고 교수해온 내용과는 동떨어진 융복합이라는 명목 하의 실용적인 강좌를 개설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며, 그 결과 교수 내용과 연구 주제 사이의 괴리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학습자, 교수자 모두의 내면에 균열을 강요하는 이러한 변화는 국문학과 국문학 전공자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대학 내에서 인문학의 입지가 위축되는 것과는 상반되게 사회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힐링이 사회적 트렌드가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는데, 힐링의 한 방편으로서 인문학이 하나의 분야를 이룰 정도이다. 이러한 열풍의 진원지가 대학이 아니라 일찍부터 대학이라는 제도권을 벗어나 인문학을 실천한 대안 인문학집단들이라는 점, 이들의 실천을 대중 매체가 발 빠르게 포섭하여 상업적인 소비재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 등은 여러모로 대학의 인문학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 대학이라는 제도권에 편입해 들어온 이들만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결과 대학의 인문학은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지도 못하고,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간혹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

좌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수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며, 정작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인문학 열풍으로부터 소외되곤 한다. 인문학적 사유와 실천이 짧은 기간 동안의 학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는 인문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를 초래한 원인이 국문학과를 비롯한 인문학 관련 학과의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에 있어 인문학의 쓸모, 인문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했다는 데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학과 사회라는 화두는 근대 문학이 성립한 이래 문학 담론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와 정치에 대한 견제 담론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해온 면이 없지 않다. “무목적의 합목적성”이나 “문학은 쓸모없음으로 인하여 쓸모를 갖는다”는 미학주의적 관점은 물론이거니와 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조차 문학은 일상을 영위하는 개개인의 삶이 아닌 사회정치나 역사 같은 집단적·이념적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고민했을 뿐이다. 가라타니 고진의 근대문학의 종언론을 참조하자면, 이러한 측면은 근대문학의 본질 그 자체이기도 하다. 즉, 근대문학은 ‘공감’을 통해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로 존재의 의미를 강화해나갔으며,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이 불가능한 시대에 이르러서는 학생운동과 더불어 영구혁명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는 비단 근대 이후 성립된 현대 문학에만 한정된 일이 아니다. 민속학과 고전 문학도 근대국가 형성을 정신적 기반인 근대문학 창안이라는 맥락 속에서 재배치된다. 그러나 네이션=스테이트가 확립되어 네이션으로서의 동일성을 상상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사라진 지금¹⁾, 문학의 역할과 임무 또한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 고전문학을 비롯한 문학이라는 근대적 학제가 근대라는 토양에서 탄생한 것을 인정한다면 그 토양의 전환이 문학의 사회·윤리적 역할에 전환을 초래한다는

1)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2006, 53~65쪽.

사실은 당연한 일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전환기에 문학과 문학 연구, 그리고 문학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쓰여졌다. 이 논문의 출발점이 이중적인 만큼 이 논문의 내용과 방향도 이중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문학 텍스트를 새롭게 읽어 내거나 문학 이론을 점검하는 전통적인 학술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부산의 문학에 관한 연구,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 연구의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 목적이 지금 여기 급변하는 부산이라는 역동적 사회에 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니만큼, 부산의 브랜드 가치, 도시성과 장소성,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기존 연구를 경유할 것이다. 특히, 근대 문학이 근대 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발명하는 데 기여한 바를 유념하며, 탈근대 문학이 발명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에 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2. 부산 문학 연구와 문화산업의 관계

부산의 문학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문학 작품에 나타난 부산의 지역성을 살피는 연구, 부산의 문학을 제도와 담론의 관점에서 살피는 연구, 부산의 지역성을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관점으로 제안하는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구체적인 지역문학 작품 다시 읽기는 개항과 동시에 근대문학의 장에 등장하기 시작한 부산이라는 공간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삶의 모습을 읽어내는데 주력한다. 주로 부산 출신 작가들에 의해 부산을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들은 작품에 재현된 개화기,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기, 근대 산업화 시기의 부산 모습을 조명한

다.²⁾ 한국 근현대 소설 속에서 부산의 삶이 반영된 문학 작품을 가려내고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이후 부산의 문학에 관한 연구의 초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도달하는 결론은 종종 부산이라는 특수 공간을 보편 공간으로 환원시키는 모순을 보인다. 가령, 부산을 “한국사회 구조변동에 대한 미시적 파악이 가능했던 곳, 인간불신과 모멸이 극대화되는 현장”³⁾으로 읽는 것은 근현대사의 배경이 된 한국의 다른 모든 지역에도 해당하는 것이며 부산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하기 어렵다. 애써 특수성을 구별해내고 이를 다시 보편성으로 환원시키는 이러한 문제는 문학을 시대와 사회상의 반영으로 보는 한 불가피하다.

지역문학에 대한 제도적·담론적 연구들은 주로 비평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들 연구는 지역문학의 가치와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논의들과 부산 지역의 문단과 잡지, 군소작가들을 발굴하여 문학사에 정립시키려는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⁴⁾ 전자는 특히 중앙의 대타적인 개념으로 형성된 ‘지방문학’이라는 수직적 위계 관점에서 벗어나 수평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문학’을 역설하고, 중앙과 지역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복수성 속의 단일성으로 지역을 호명하기

2) 조갑상, 『한국소설에 나타난 부산의 의미』,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9; 조갑상, 『근대 지역문학으로서의 부산-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김승환, 『한국근대소설과 부산의 시·공간성: 김동리의 <밀다원시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이상원,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의 다방』, 『동남어문논집』 31집, 동남어문학회, 2011; 김만석, 『요산과 향파 소설의 공간정치학: 산업화 시대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26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3) 조갑상, 『근대 지역문학으로서의 부산-소설을 중심으로』, 85쪽.

4) 이순옥, 『정전체제의 형성과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 『지역과 역사』 32호, 부경역사연구소, 2013; 이순옥,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김대성, 『제도 혹은 정상화 지역문학의 역학-“피난문단”과 “무크지 시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3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위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개별성을 발견하기, 타자의 시선에 매개된 평면적 재현을 넘어서 지역 내부의 다양한 차이들을 구체적으로 읽어내기 같은 것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이다.⁵⁾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구체적인 작품 분석이 드물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작가를 발굴하고 부산의 문학 제도를 재조명하는 문학 연구들은 한국 문학사 속에 부산 문학의 입지를 개척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선행 연구가 있었기에 부산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개발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 부산 작가의 문학관이 건립되고 작가의 발자취나 소설 속의 공간이 관광 자원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전통적인 관점의 문학 연구의 성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만으로는 문학과 문학 연구가 “자기 땅으로부터 나와 자기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치를 창조하는 가치 실현”⁶⁾을 이루는 데 충분하지 않다. 이를테면, 부산의 문학 연구는 “부산인의 개방성과 저항 의식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진보적인 선구자적 개척정신으로 고양시켜 나갈 수 있을까?”⁷⁾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은 부산의 오래된 옛 이야기들을 재창조한 개별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비평적 성찰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부산의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개발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창조산업과 창조도시라는 개념,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창조’라는 개념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가 국가를 대신하여 세계적 경쟁의 단위가 되는 시점에서 생존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의 창조성이란 “효율성이나 생산성과 같은 산업주의의 원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호출된 것”⁸⁾일 수도 있기 때문

5) 문재원, 『문학담론에서 로컬리티 구성과 전략』, 『한국민족문화』 3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87~91쪽.

6) 구모룡,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 신생, 2005, 35쪽.

7) 김성국, 위의 글, 179쪽.

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의 문학 연구는 부산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개발에 관해서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은 그 태생 자체가 자본주의적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는 이미 ‘산업화’ 또는 ‘문화상품화’를 전제한 개념으로서, 문화콘텐츠는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한 원소스멀티유스(OSMU)를 지향하는 것이라면⁹⁾ 스토리텔링은 “문화콘텐츠가 지닌 문화의 자본화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제안된 개념이다.¹⁰⁾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은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 시대로, 그리고 감성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산업 패러다임의 중심이 문화산업으로 옮겨가면서 급부상하게 된다. 우리 정부의 산업 정책 또한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면서¹¹⁾ ‘창조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콘텐츠기반 경제(content based economy)의 문화산업을 다방면에서 압박하고 있다.¹²⁾ 게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의 도입 이후 도시 경쟁력과 산업발전을 도모해야 지방 정부에서도 전통적인 지역기반 산업과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를 콘텐츠화하고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¹³⁾ 그러나 ‘지방주의’ 시대의 지역 정체성 찾기가 중앙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려고 애쓸수록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비슷하게, ‘지역주의’ 시대의 지역 정체성 찾기는 지역 문화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려고 애쓸수록 자본논

8) 이상봉 엮음, 『창조성과 도시』, 소명출판, 2013, 3~4쪽.

9) 이윤선, 『민속문화 기반의 문화콘텐츠 기획론』, 민속원, 2006, 19~20쪽.

10) 박기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창의성 구현 전략 시론』,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제4집,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2009, 37~38쪽.

11) 김기현, 『문화산업 정책의 변동에 관한 소고』, 『문화콘텐츠연구』 제2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2, 47~48쪽.

12) 구문모, 『문화산업의 성장 잠재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활성화 방안』, 『문화정책 논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157~158쪽.

13) 송희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기획 연구』, 『예술경영』 24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2, 73쪽.

리에 대한 종속될 위험 또한 증가하는 역설에 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 인해 부산의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훨씬 더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스토리텔링의 생산을 통해 문화산업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실천에 동참하거나 그 방법론을 수립하는 일 못지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상품화된 지역 정체성, 즉 지역의 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과 주체와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부산에서 이러한 측면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분야는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과 마을 만들기라는 공간 기획이다. 따라서 3장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개발을 요청하는 부산시의 도시재생 사업 및 마을 만들기를 검토함으로써 4장에서 논의할 스토리텔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통해 문학 연구와 교육에서 도시재생과 연동하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색하고자 한다.

3. 마을 만들기 사업과 미학화의 덫

1995년 지방자치 정부로 거듭난 부산시는 ‘국제도시 부산’에서 ‘세계도시 부산’으로 아젠다를 바꾼다. 국제도시가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 도시의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면 세계도시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경제체제 내에서 지역 간 분업과 통합이라는 구도로 작동한다. 그 결과 도시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성장 전략이 시정 최고의 목표가 된다. 이는 지역 내 산업의 구조를 재편할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기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세계도시’ 비전하에 이루어지는 공간 기획은 성장주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 내부를 다시 중심과 주변으로 분절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지역에 뿌리내리고 일상을 영위해온 지역민들은 하위주체로서의 정체성

이 더욱 공고히 되고, 소외된 지역들은 비가시적 존재로 재구성된다.

2010년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흐름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처럼 보인다. 이 사업들은 소외된 지역과 지역민들을 호명하여 주체로 불러 세우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능동적으로 조직하여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의 산동네들은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문화적으로 척박하여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곳에 불과했다. “2006년 이전의 자료집과 연구보고서들에서 부산 산동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글은 거의 없다”는 한 연구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적절히 지적한다. 『부산의 산동네』가 발간된 2008년을 전후로 해서야 부산 산동네는 새롭게 재발견되고 산복도로가 부산의 10대 히트 상품 중 3위로 선정되고¹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¹⁵⁾이 시작된 것도 2010년에 이르러서이다. 이러한 흐름은 매우 급진적이어서 뒤이어 2011년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2013년도에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부산시의 ‘문화 소프트 역량 강화로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기획과 더불어 부산의 마을재생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지역특성과 정체성, 지역 자원보존을 핵심으로¹⁶⁾ 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이러한 마을재생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도시개발이 갖는 폐해, 즉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삶의 터전을 강제적으로 해체하고 원주민들을 소외시키는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자면 주민들을 주체로 호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 재생 사업 또한 자본의 논리로부터 완전히 자유

14) 조관연, 『‘마을가꾸기 사업’과 부산 안동네 마을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4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273~274쪽.

15) 양재혁·한영숙, 『행정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2012년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55호, 2013년도, 102쪽.

16) 이연숙·박재현,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지역자산 기반 재생과정 연구』, 『생태환경건축』,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4, 113쪽.

롭지는 않다. 이러한 협의는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개발이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무렵까지 지속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부산시내에서만 2001년에 130곳, 2009년에 487곳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결과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이 방치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¹⁷⁾ 만약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더라도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처럼 활발하게 진척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떠올려보면,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재생 사업이 단순히 주민들의 삶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부산 내부의 지역적인 불균형을 만들고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소외시켰던 자본의 논리가 좌초위기에 놓이면서 세계도시와 창조도시라는 아젠다 하에 이름을 바꾸고 전략을 달리하여 주민들을 주체로 호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모델이 강조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시 이러한 협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 근대현대사의 흔적을 비교적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들을 복원함으로써 기대하고 있는 한 가지는 이들 지역들을 센텀시티나 마린시티와 함께 관광자원화함으로써 부산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도시로의 성장을 선도하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모델은 미학화의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호명된 마을 주민들이 자본의 논리에 자발적으로 종속되게 만든다는 점이 중요하다. 개발 위주의 도시개발이었다면 이미 헐리고 폐쇄되었을 낡고 불편한 지역이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모델에서는 아름답고 정감있는 지역으로 재해석된다. 이러한 미학화의 중심에는 공공미술을 통한 마을재생이 있다. 공공미술을 통한 마을재생은 2007년도 문현안마을¹⁸⁾의 벽화 프로젝트와 2009년도 감천문화마을의 ‘마을미술프로젝

17) 이연숙·박재현, 위의 글, 113쪽.

트'19)의 성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두 가지 프로젝트 모두 예술가의 주도 아래 미술을 매개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부산시가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대체로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추진되게 된 데에는 이들의 성공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

벽화나 조각, 염색, 공예 같은 “공공미술을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하는 경우 문화 관련 건축물을 건립하는 전략보다 비용 면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또한 축제와 같은 문화 이벤트를 통한 도시재생 전략보다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²⁰⁾ 뿐만 아니라 미술이라는 활동의 특성 상, 주민들의 실제적인 참여가 수월하고, 그 결과의 가시성과 물질성으로 인해 성취감 및 만족

-
- 18) 문현의 안마을은 도시재개발이 좌절된 후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서울의 이화마을과 통영의 동피랑 마을의 변화를 모델로 시행된다. 이 사업이 2008년도에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 대상 주거환경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자 이에 고무된 시청은 벽화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 보다 더 많은 5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들을 발간하였고, 적어도 30여 개의 지자체가 안동네를 모델로 자기 지역에서 벽화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계기가 된다. 『지역색·개성·역사성 입히기: 작가-주민과 함께 고민할 때』, 『부산일보』, 2011.5.24. 참조.
- 19) 감천문화마을은 중앙 정부의 공공예술지원사업이 계기가 되어 지역 예술가의 주도 아래 2009년 ‘마을미술프로젝트’가 먼저 시작되었고 “일련의 성과가 나타나자 이어서 이 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 지원의 공공사업들이 병행되었다. 이 지역의 재생은 공공예술만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수반하게 됨으로써 예술문화사업으로 시작한 문화적 재생은 물리적 재생과 생활문화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폭넓게 발전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연숙·박재현, 위의 글, 113쪽; 이호상·이명아, 『문화예술을 매개로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나오시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10,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2, 171~183쪽; 김창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창조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104쪽 등.
- 20) 박민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연구: 대전 대동마을과 프랑스 리옹(Lyon) 벽화 마을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3, 46쪽.

도는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물질로서의 산물은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 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그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대량 복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같은 현실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 살리기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겠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자신의 삶과 생활공간을 미술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미적으로 전유하는 미학화는 지적·도덕적으로 열등한 타자를 미적으로 숭배하는 오리엔탈리즘적 태도의 연장에 있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경유하여 칸트의 미학을 전유한 고진에 따르면 미적 태도는 ‘의식적인 괄호내기’라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미는 대상에 내재해 있는 것, 혹은 단순히 감각적 쾌적(快適)이 아니라 ‘이해(interest)’를 적극적으로 방기하는 능동성에서 생겨나는 쾌다. 고진은 근대의 미가 근대 경제체제의 변화와 동시에 성립되었음에 주목한다. 화폐라는 매개를 통해 물건들의 차이(사용가치)가 괄호에 넣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미적 인식은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이익과 사용가치를 괄호 안에 넣고, 그럼으로써 물건들의 차이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²¹⁾ 이러한 논리는 공공미술 및 문화를 통한 마을재생 사업의 맥락에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의 주거 공간을 단장하고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고, 마을의 역사를 복원하여 의미 부여를 하는 작업은 마을의 일상적 삶에 내재한 실제적인 이해관계, 예컨대, 이웃 간의 해묵은 갈등이나 생활을 둘러싼 사소한 다툼, 토지나 공간 점유를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괄호에 넣음으로써 일상을 미적인 대상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일이다.

그 결과 대상을 미학화하는 주체, 즉 오리엔탈리즘적 주체는 “다른 사

21)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b, 2008, 157~164쪽.

람들은 몰라도 자신은 비서양인을 대등 이상의 존재로 다루고 있다고 믿는” 자기기만에 빠지고 미학화된 대상은 주체로서의 자리를 오리엔탈리즘적 주체에게 내어준 채 자기 소외에 빠지게 된다. 고진의 용어를 빌자면, 이러한 위험은 괄호 벗기기를 잊어버릴 때 발생한다.²²⁾ 괄호넣기에 의해 대상을 발견한 심미주의자는 괄호넣기를 통해 발견한 것을 타자 그 자체와 혼동한다. 벽화마을을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곳으로 바라보던 방문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주민들의 민낯을 보았을 때 느끼는 당혹감은 이 때문이다. “이쁜 동화와 같은 그림을 마음속에 담았던 출사가 참혹한 환경에 의해 실망스런 발걸음이 될 줄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으며 이러한 무책임한 발상을 계획했던 담당자와 페인트와 붓을 들고 나섰던 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진다.”나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으려니 숨겨야 할,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부분만 촬영하자.”²³⁾는 반응에는 불쾌감을 넘어서 일종의 배신감마저 깔려 있다. 미적 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할 타자가 미적인 대상임을 거부하고 타자로서의 민낯을 주장할 때 심미적 주체의 내면에 촉발되는 이러한 불편함은 그 대상이 미적인 대상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주체의 욕망을 폭로한다. 말하자면, 대상에 대한 “미적 관심은 ‘이자(異者)’로서 아무런 놀라움을 주지 않는, 매우 보통의 ‘타자’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²⁴⁾

심미적 주체가 괄호넣기를 통해 발견한 마을과 마을주민의 이미지를 그들의 정체성 자체와 혼동한다면, 스스로를 괄호에 넣음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자 하는 마을주민들은 그 만들어진 정체성을 그 자신과 혼동한다. 지방정부의 일방적 욕구에 의해서 추진한 결과, 지역 주민과 교감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거나²⁵⁾, “부산의 공공미술이 뿌리를 잘 내리

22) 가라타니 고진, 같은 책, 155~162쪽.

23) 조관연, 앞의 글, 281쪽 재인용.

24) 가라타니 고진, 같은 책, 163쪽.

기 위해서는 그 땅이 가지는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양식 등에 대한 선행 학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특히 최근 들어 공공미술이 지자체별로 유행처럼 번져가면서 그 사업의 본래 목적이나 성격은 변질되고 예술가들이 아닌, 소위 업자들의 일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주민과의 소통이 없는 곳은 자칫 장소 불특정 미술이 등장하기 쉽고 마을의 기억을 지우거나 강제로 기억을 주입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²⁶⁾ 등의 기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마을재생사업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하다.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니 1년 단위 내지는 그보다 훨씬 짧은 단위로 추진돼 주민 참여에 한계를 보인다”²⁷⁾, 벽화 일색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²⁸⁾, 등의 문제보다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산과 조직의 안정성, 콘텐츠의 다양화, 사후 관리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대안을 찾기가 비교적 수월하다.²⁹⁾ 그에 비해 미학화의 덧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25) 조관연, 앞의 글, 282쪽; 『소통 잇은 부산 공공미술』, 『부산일보』, 2011. 5. 24.

26) 『지역색·개성·역사성 입히기』 작가 - 주민 함께 고민할 때, 『부산일보』, 2011. 5. 24.

27) 『박태성의 세상 속으로-‘주민의 삶’이 사라진 도시재생』, 『부산일보』, 2009. 9. 16.

28) “2007년부터 최근까지 민간단체의 자원봉사로 벽화거리가 조성된 것까지 합치면 부산지역에만 4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벽화를 이용한 도심재생이 시작된 지 3~5년이 흐르면서 기초단체 곳곳에는 벽화 재도색과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구·군에서는 관내 벽화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벽화관리에 필요한 관리예산도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도시재생 열풍에 곳곳 벽화...관리예산은 '0'』, 『연합뉴스』, 2013. 3. 13.

29) 실제로 부산시는 실행상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제2기 도시재생 원년”으로 정하고 제도와 시스템, 법률의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마을만들기, 희망마을만들기, 커뮤니티뉴딜사업 등의 이름으로 5개 분야, 22개 세부 사업으로 부산시 13개 부서에 흩어져 추진돼” 왔던 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한 것이다. 『부산시 마을만들기 통합 컨트롤타워 가동한다』, 『부산일보』, 2013. 1. 15.;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창설 3주년』, 『한국일보』, 2013. 7. 9. 2013년 부산시 주도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러한 분열은 주민들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공미술의 수월성으로 인해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경제적·사회적·역사적 맥락이 중첩되어 있는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부터 이익을 괄호 안에 넣음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미적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괄호를 벗기지 못하는 한, 그리고 괄호넣기에 의해 발견된 이미지를 자신들의 삶으로 착각하는 한 그들의 삶과 공간은 괄호 안에서 박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미학적 주체는 자신을 상품화하는 탈근대적 주체이기도 하다. 근대의 미가 상품경제에 대척점에 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건들의 차이를 괄호에 넣는 상품경제의 메카니즘과 동일한 메카니즘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³⁰⁾ 창조도시와 문화도시라는 아젠다를 앞세워 마을을 공동체로 호명하고 마을 주민들을 마을 재생의 주체로 정립하려는 시도, 다시 말해 마을 재생 활동이 주민에게 요구하는 정체성, 그리고 주민 스스로 내면화하는 정체성은 상품생산의 주체, 자신의 정체성을 상품화하여 소비자에게 팔아야 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세계자본주의 시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신의 삶과 고유성, 꿈을 자원화하고 상품화하여 전시하고 구매를 유인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주체, 하면 된다는 긍정의 자세로 자기 계발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악덕이며 무능이라고 생각하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국가선도사업 지역 및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지정을 위해 '도시재생형 창조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이라든지(『부산시 '창조도시본부' 창설 3주년』, 2014년에 부산지역 산복도로 르네상스프로젝트를 해외에 소개하는 영문 홍보책자 'Sanbokdoro Renaissance Project'를 발간하고, '부산도시재생선언'을 선포한 것(『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해외에 알린다』, 『헤럴드경제』, 2014. 4. 17.)은 도시재생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 의지 표명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주도의 작은 성공을 정책으로 수용하여 확산시키고 미비한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해 가는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30)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158~160쪽.

주체, 자기 책임과 자기 주도 하에 끝없는 자기계발을 스스로에게 강요함으로써 우울과 불안, 그리고 무기력에 시달리는 주체³¹⁾로 재구성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이와 같은 탈근대적 주체화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찍이 자기계발과 경쟁에서 밀려나 노령화된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과잉긍정으로 정의되는 성과주체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삶의 터전이 관광지로 개발되어 보여지는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을이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나 조만간 이러한 내면의 갈등이 봉합되어 마을공동체와 마을 주민들이 성과사회의 주체로 재구성될 수도 있다. 인문학적 성찰을 결여한 채,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마을주민들을 미학의 주체로 구성하려는 시도는 그런 점에서 위험하다. 근대 미학에 내재해 있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익의 팔호넣기 전략은 자율과 자립의 권리를 양도해 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등한 자격을 지니는 주체(subject)로서의 정립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동일 행정 구역 내 다른 마을, 다른 도시와의 무한 경쟁 속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자본의 신하(subject)가 되기를 유인하는 전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이들 지연(地緣)에 의해 동일자로서 소환되는 집단을 어떤 공동체로, 그리고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문학, 그리고 문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4. 마을이라는 새로운 공동체 상상하기

고진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오리엔트 사회를 대상화하는 것을

31) 한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참조.

금지하거나, 오리엔트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은 오리엔트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오리엔트를 미적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고진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에서 사이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 즉 인식대상물이나 미적 대상으로 결코 환원되지 않는 개개인의 인간이 있다³²⁾는 점이다. 고진은 이를 괄호 벗기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라고 바꿔 말한다. 근대가 상품경제의 발달과 함께 성립한 이상, 화폐를 매개로 모든 것이 괄호에 넣어지는 메카니즘을 거부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괄호 넣기에 의해 발견된 것을 실제로 오인하지 않는 것, 그 괄호를 물신화하지 않는 것, 그 괄호를 벗기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낙후되고 궁핍한 마을의 일상을 괄호에 넣어 미학화하는 것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다. 괄호로 묶일 수 없는 타자로서의 개개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억압하거나 망각하고 괄호 넣기에 의해 발견된 마을을 실체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산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그 다양한 개별적인 특수성들을 단일화하고 그에 들어맞는 고유한 특성들을 찾아내어 일반화시키고 수렴하는 본질주의적인 작업이어서는 곤란하다. 혈연과 지연, 공동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종교나 문화를 매개로 하는 정서적 일체감을 갖는 집단이라는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가 이미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는 더욱 필요하다. 각기 다른 고향과 출신계층, 성별과 욕망을 지닌 개인들의 집합을 단지 지리적·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가진 집단으로 호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것이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와 에릭 홉스봄의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본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네이션과 전통 같은 것이 실체적이고 본원적인 것이 아니

32) 가라타니 고진, 앞의 책, 173쪽.

라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법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은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해야 하는 지금의 맥락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물론 근대의 네이션과 스테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논리를 탈근대로 이행해가는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가장 단순하게 보더라도 네이션-스테이트가 성립하던 때와 이것이 해체되어 가는 지금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같지 않고, 그 규모나 구조에 있어서도 네이션-스테이트와 마을-지역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상상의 공동체가 출현하기 시작한 토대에 대한 앤더슨의 설명과 전통이 가장 활발하게 발명되던 시기에 대한 홉스봄의 논의를 보면, 그들의 언급하는 근대와 탈근대로 이행해 가는 현재의 상황 사이에는 유사점이 많다. 앤더슨에 따르면 특정 정보 언어의 존재론적 특권과 군주의 우주적 신성화, 우주관과 역사의 미분화적 인식이 해체되면서 네이션이 고안되었으며, 홉스봄은 어느 때나 전통의 발명은 일어나지만, 사회가 급속히 변형됨으로써 ‘낡은’ 전통이 기반하고 있던 사회적 패턴들이 약화되거나 파괴되고 낡은 전통을 제도적으로 매개하고 보급하는 수단이 유효성을 상실할 때 전통의 발명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³³⁾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태는 자본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중심으로 전지구화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 국제법이 한층 더 위력을 뽐어나가며 영어가 라틴어나 한자에 버금가는 세계어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현재의 모습과 유사하다.

네그리와 하트가 현재의 상황을 ‘제국’, 즉 네이션-스테이트가 분화되어 나온 토대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21세기의 “탈영토화된 전지구적 지배구조를 의미”하는³⁴⁾ 제국의 출현은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결과로서, 주권이 국가에서 초국가적 기구들에게 이양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지

33) 에릭 홉스봄, 박지향·정문혁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26쪽.

34)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2001, 16쪽.

구적 시장 및 생산체제로 이행함으로써 국민국가가 국내의 정치·경제·문화적 문제들을 단독으로 규제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워진다.³⁵⁾ 네그리와 하트가 말하는 ‘제국’의 개념은 영토적 경계에 입각한 근대의 네이션-스테이트나 자국의 영토를 넘어 외부로까지 권력의 경계를 극대화하는 제국주의와는 다르다. 제국주의는 오히려 근대의 네이션-스테이트의 또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국은 네이션-스테이트와 양립할 수 없다.

가라타니 고진은 이와 비슷한 개념을 ‘제국주의적’이라는 용어로 부른다.³⁶⁾ 그는 ‘제국주의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의 네이션-스테이트가 붕괴되고 그 이전의 시기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특히 금융자본 또는 투기적 자본에 의해 지탱되는 현재의 자본구조가 근대의 네이션-스테이트 직전 단계인 상인자본과 유사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그때까지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가 쇠퇴하고 그것을 대신할 신흥국가 사이의 경쟁이 이어진다.³⁷⁾

지금 단계가 고진의 예측처럼 새로운 국가의 출현으로 종식될 지, 아니면 국가가 해체되고 네그리와 하트의 예측처럼 ‘다중’이라는 잠재적으로 통합된 보편적 그룹의 출현으로 이어질지 혹은 아주 오래전 도시국가처럼 세계도시 간의 무한경쟁으로 이어질 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근대 네이션-스테이트의 힘이 약화되고 ‘제국’과도 같은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 바로 부산이 세계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체성을 정립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지금 당면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즉, 근대의 네이션-스테이트가 싹튼 것과 유사한 토양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근대의 네이션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상상

35) 네그리·하트, 앞의 책, 16-17쪽; 이화용,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에 대한 재성찰: 다중과 지구적 민주주의」, 『국제정치논총』 제54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15쪽.

36)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2006, 66~69쪽.

37) 가라타니 고진, 위의 책, 67쪽.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지역 단위로 찾아 볼 수 있다. 지역이 더 이상 국가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한다면, 지역 공동체를 더더욱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특히, 동일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 사회경제적 계층이 유사하다는 것, 대부분 이주민이라는 것 등, 부정적인 가치에 의해 소극적으로 묶이는 마을 주민들이 건강한 연대의식에 기반한 적극적 의미의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지역 주민들을 미학적 대상으로 소외시키지 않으며 공동체를 상상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참조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베네딕트 앤더슨이다. 언어와 인쇄자본주의가 근대의 네이션을 상상하는 기제라고 보았던 앤더슨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이 마을 공동체를 미학화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근대 초기 인쇄자본주의에 의해 활자로 고정된 지방어는 공간적·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통일하는 근간이 되고, 대량 인쇄되어 지역적 경계를 넘어 읽히게 된 소설과 신문이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주체들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하는 고리를 제공함으로써 동시성의 경험을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상상의 공동체가 정립된다.³⁸⁾ 이러한 앤더슨의 논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개별적인 주체들의 내면을 재조직하여 공동의 유대감을 갖게 만드는 직접적인 기제가 매체라는 사실이다. 언어라는 매체, 인쇄와 활자라는 매체, 그리고 소설이라는 매체가 개인의 내면을 재조직하고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근대의 인쇄기술이 활자 중심의 문자문화를 낳았고 이것이 근대적 네이션을 상상하도록 이끈 것이라면 탈근대 시대에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대의 공공체를 상상하도록 만드는 역할은 단연 디지털 방식에 의한 매체가 담당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디

38)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사, 2002, 33~62쪽.

지텔 매체의 기본적인 속성상, 디지털 매체는 지역적 경계 내에서 공동체적 연대를 구축하기보다는 그 한계를 넘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매체는 오히려 원격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면서 면대면 상호작용에 기반하는 지역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말, 소리, 이미지 등의 실시간 상호작용이라는 디지털 매체의 특징은 “현장성(=현재성), 재연성, 소통성을 그대로 지니는 시공간적(현장성), 다감각적(재연성), 상호작용적(소통성)”³⁹⁾인 구술성의 특징이기도 하다.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구술성이 구현되는 구체적인 담화방식이다. 물론, 이때의 스토리텔링은 “문화콘텐츠가 지닌 문화의 자본화 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한 실천 전략, 혹은 디지털매체로 전달하기 위한 재료 같은 실용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야기-하기”라는 본래적인 의미로서 스토리텔링, 즉 “사실적 및 허구적 사건을 시각이나 청각 등에 호소하며 실시간적으로 재연해 전달하거나 소통하는 시공간적 또는 다감각적 또는 상호작용적 담화 양식”⁴⁰⁾을 의미한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바로 문자문화 시대에 축소되고 주변적으로 밀려났던 구술적 특성이 탈 문자문화적인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강력하게 귀환하는 현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근대의 네이션이 인쇄자본주의-문자-소설에 의해 상상된 것을 오늘날에 대입해보면, 구술문화적 속성을 지닌 디지털 매체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스토리텔링이 공동체를 상상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매체가 개인의 내면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성은 2011년도에 동의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안창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문학강좌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대중화사

39)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14호, 인문콘텐츠학회, 2009.3, 245쪽.

40) 류은영, 앞의 글, 245쪽.

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가야골 희망대학 인문학강좌>는 동의대학교와 인접해 있는 안창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체와 지역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강좌에 대한 호응도와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래적인 취지에서 보자면 이 강좌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작 안창마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았고 수강생들로 하여금 지역을 경유하여 개인을 성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패는 인문대학 교수로 구성된 강사진이 마을 만들기와 지역재생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수 방법에 있어서 대학 강단에서 이루지는 것과 같은 방식, 즉 강의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수의 수강자는 듣기만 하는 소통방식이 이러한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탈근대 시대의 수강생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할 것을 의도했으면서 작가의 말을 일방적으로 읽어야 하는 근대적 매체의 소통방식을 적용했던 것이다.

근대적 매체의 소통 방식으로는 지금 여기에 요청되는 마을이라는 탈근대적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문학 연구와 교육은 근대의 산물인 소설로부터 구술성에 입각한 본래적 의미의 스토리텔링으로 시선을 이동할 필요가 구체화된다.

5. 구술 담화로서 스토리텔링과 문학의 가능성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금 여기 부산에서 개척해야 할 문학 연구와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이 장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스토리텔링의 전략과 방법이 될 것이다.

우선, 문학 연구는 구술 현장을 미학화하는 방법론을 구축해야 한다. 본래적 의미의 스토리텔링의 맥락에서 보자면 구술 채록은 문화콘텐츠

를 추출해내기 위해 기본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근대 소설의 구조와 목독의 방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독자들에게 동시성의 감각을 불러일으켜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말이나 소리, 이미지, 제스처 등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마을 주민들에게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감각을 일깨울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이야기하기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여기에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즉, 각기 다른 삶의 내력과 현재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구술 주체들이 차이 속의 동일성을 읽어내고 동일성 속의 개별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구술현장을 미학화하는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삶이라는 소재를 특별한 전략으로 문자화한 결과물만을 작품으로 보는 근대적 문학관을 확장하여 구술현장 자체를 텍스트로 재정의해야 한다. 칸트의 미학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예술은 대상의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예술로 간주할지 말지, 바꿔 말해 그것을 ‘무관심’하게 볼지 말지에 의존하는 것⁴¹⁾이라면, 특정한 주제와 기법을 사용한 것만이 예술은 아니다. 뒤샹의 변기처럼 가장 평범한 일상, 삶의 현장 또한 괄호냉기에 의해 하나의 텍스트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구술현장을 미학화하는 주체는 채록하는 연구자나 채록자에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미학적 텍스트로 마을의 삶과 일상을 전유하는 주체의 자리는 문학 연구자보다는 구술하는 주민들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스토리텔링을 미학적 텍스트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연구자들이 경주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미학화하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에 대해 연구이다. 이는 곧 문자텍스트를 공감하는 방식, 즉 강독의 기술 대신 구술텍스트를 공감하는 강청의 기술을 탐색하는 것이며, 소통과 교감의 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41) 가라타니 고진, 『네이션과 미학』, 162쪽.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들을 공히 주체로 정립시키며 하나의 공동체를 상상하게 만든다. 청자와 화자의 자리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언제나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팔호 넣기와 팔호 벗기기의 지속적인 교체의 과정이기도 하다. 본래적 의미의 스토리텔링에 내재된 현장성과 가변성 덕분이다. 스토리텔링이 행해질 때마다 기존의 팔호는 벗겨지고 새로운 팔호 넣기가 행해지고 이 팔호는 다시 벗겨진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마을 주민들은 팔호에 넣어짐으로써 형성된 정체성을 실체로 오인할 위험에서 멀어지고 똑같이 동등하고 똑같이 자유로운 주체로 서게 된다.

이처럼 현재적이고 재연적이며 상호작용적인 특징이 구현되는 현장 텍스트를 1차 스토리텔링이라고 한다면 개별적이고 다양한 1차 스토리텔링으로부터 이끌어낸 하나의 추상된 이야기를 2차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2차 스토리텔링은 다시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공간 스토리텔링과 같은 다양한 매체로 구현될 때, 이것을 3차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 고유의 스토리텔링, 마을의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의미하는 것은 2차 스토리텔링과 3차 스토리텔링이다.

문학 연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과제는 1차 스토리텔링으로부터 2차 스토리텔링을 구성하는 방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 변환 과정에 따라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의 본래 주인들과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1차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분류하고 의미부여 하는가 하는 점은 그래서 중요하다. 1차 스토리텔링으로부터 2차 스토리텔링을 재구성하는 방법은 프롭이나 그레마스의 이론 같은 구조주의 사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크게 복수의 1차 스토리텔링에서 반복되는 행동자(actuer)들을 추출하여 이들을 몇 개의 패러다임으로 분류하고, 그 패러다임을 표지화함으로써 행위자(actant)를 환원해내는 작업, 사건들을 단어 같은 분류 표지(label)나 단

문의 서사명제로 패러프레이즈하고, 이들 간의 결합원리를 도출해내는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누구 혹은 무엇이라는 주어를 도출하는 구조화 작업이라면, 후자는 행위 또는 사건이라는 서술어를 도출하는 구조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출된 2차 스토리텔링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공간스토리텔링 같은 3차 스토리텔링에 대해 심층 구조, 혹은 서사 문법으로 기능한다. 1차 스토리텔링에서 2차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연구와 분석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면 2차 스토리텔링에서 3차 스토리텔링을 생산하는 작업은 창작의 영역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3차 스토리텔링은 근대적 의미의 창작, 즉, 개별 작가의 개성과 사상을 표현하는 창작과 거리가 멀다. 3차 스토리텔링의 창작은 상호주관적이며 융복합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창작의 과정은 그 스토리텔링의 기원인 마을 공동체의 삶을 매개하고자 하는 욕망과 다른 창작물과 변별성을 갖추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상품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욕망 등, 복합적인 욕망들이 상호 길항하는 장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문학 전문가들뿐 아니라 매체 전문가, 공간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종합해보면, 이 시점에서 문학 연구자가 개척해야 할 연구 범위와 대상은 분명해진다. 1차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들을 미학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 1차 스토리텔링으로부터 2차 스토리텔링을 도출해내는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생산된 3차 스토리텔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이 문학 연구자들이 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연구 방향과 영역의 확대는 국문학의 교수 내용을 필연적으로 재구조화한다. 학생들은 1차 스토리텔링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 미학화하는 주체가 되고 주민들을 미학화하는 주체가 되도록 상호작용하면서 강청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한편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미학을 실천하는 과정이며,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자

사회적 연대감을 함양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2차 스토리텔링을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분석과 종합의 능력, 즉, 구조주의적인 사유를 습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술 텍스트 뿐 아니라 문자 텍스트 및 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 문화 텍스트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개별적인 삶이라는 텍스트들 속에서 구조를 읽어내고, 차이 속에서 같음을 읽어내는 훈련의 반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3차 스토리텔링의 과정은 보다 자유롭고 확산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창작물의 수용자와 창작물로부터 기대하는 목적에 집중하되, 주어진 재료 안에서 이질적인 것들을 결합하고 창조하는 야만의 사고, 레비스트로스가 브뤼콜라주라고 불렀던 방식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 속에는 근대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 뿐 아니라 문학과 문화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와 역사, 공동체와 주체에 대한 인문학적 결과물들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내용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은 삶과 괴리된 죽은 지식이 아니며,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폄하되는 특수한 분야의 지식도 아니다. 그렇다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단순한 종류의 기술도 아니고, 자본에 일방적으로 복무하는 지식도 아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저 지역이나 마을 공동체를 상상하는 데에만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삶에서부터 마을 이외의 사회적 집단을 상상하고 기획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지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상상하는 데에도 쓸모가 있을 것이다. 어떠한 공동체를 상상해야 하는가 또한 문학 연구의 중요한 테마 가운데 하나이다. 그 공동체는 네그리와 하트가 제안한 다중처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되어 국가에 얽매이지 않으며, 특이체의 다양체이자 포괄적인 구성적 관계 속에서 지금껏 소외되고 배제된 경계 밖의 구성원을 포용하는 공동체⁴²⁾일 수도 있고, 가라타니 고진

42) 이화용, 앞의 글, 21쪽.

의 어소시에이션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자율성과 상호 보살핌에 의해 새로운 상호증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일 수도 있다.⁴³⁾ 이런 방식으로 문학과 국문학은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오늘날 사회와 보다 살아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6. 결론

이 연구는 문학 연구자이자 교수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급변하는 최근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그에 맞물려 야기된 대학 내 인문학의 위기로부터 촉발된 연구는 어찌 보면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논리에 굴복하여 문학 고유의 가치를 상대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대에 뿌리를 두고 출현한 문학에 대해, 그 토양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대적 관점을 견지한다면, 머지않아 문학은 고고학이나 인류학 같이 특수한 시대를 배경으로 생겨났다 사라져가는 학문들처럼 보호학문으로서만 명맥을 유지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지방 사립대 국문과의 커리큘럼과 수도권 대학 또는 국립대 국문과의 커리큘럼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국문학을 국학으로서 바라볼 때나 유효하다. 국민국가를 정립하고 근대적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로서 초중등 교육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대학 교육은 본래부터도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은 아닌데다가 문학계 내부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문학이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도 오래됐다. 개성의 표출로서의 문학이든 사회와 역사적 사건의 반영으로서의 문학이든 근대 문학이라는 분과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없다.

만약,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문학에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남아 있다

43) 가라타니 고진, 위의 책, 22쪽.

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 제기되고 있는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시대적 압력을 직면하고 그에 성실히 응대하는 일일 것이다. 최근 대학이라는 제도 내부에서 국문학을 뒤흔드는 위기를 그저 시장논리에 잠식당한 야만적인 시대의 천박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견고한 동일성을 주장하는 대신, 그 위기를 문학이라는 주체에게 전혀 이질적이고 낯선 타자가 건네는 질문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학 연구자이자 교수자인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다.

지역의 문학작품을 발굴하고 새로운 의미부여를 하는 연구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산시를 세계도시로 브랜드화하려는 정책,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들, 부산 고유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요청들을 문학이라는 장으로 던져진 질문으로 사유할 때, 문학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할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마을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는데 문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이 연구는 이러한 응대의 한 방법이다. 스토리텔링의 본래적 의미를 복원하고 그 층위를 구분하여 필요한 내용을 연구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문학이 사회와 관계 맺는 방안이며, 학문의 장 차원에서 국문학과 국문학과라는 폐쇄적인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방식일 수 있다.

참고문헌

- 『박태성의 세상 속으로-‘주민의 삶’이 사라진 도시재생』, 『부산일보』, 2009. 9. 16.
-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해외에 알린다』, 『헤럴드경제』, 2014. 4. 17.
- 『부산 도시재생 열풍에 곳곳 벽화…관리예산은 ‘0’』, 『연합뉴스』, 2013. 3. 13.
- 『부산, 5대 新전략산업 키운다』, 『파이낸셜 뉴스』, 2014. 9. 28.
- 『부산시 마을만들기 통합 컨트롤타워 가동한다』, 『부산일보』, 2013. 1. 15.
- 『부산시 ‘창조도시본부’ 창설 3주년』, 『한국일보』, 2013. 7. 9.
- 『소통 잇은 부산 공공미술』, 『부산일보』, 2011. 5. 24.
- 『지역색 · 개성 · 역사성 입히기: 작가-주민과 함께 고민할 때』, 『부산일보』, 2011. 5. 24.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근대문학의 종언』, 도서출판b, 2006, 53~69쪽.
_____,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b, 2008, 157~164쪽.
- 구모룡,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 신생, 2005.
- 구문모, 『문화산업의 성장 잠재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활성화 방안』, 『문화정책논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157~184쪽.
- 김기현, 『문화산업 정책의 변동에 관한 소고』, 『문화콘텐츠연구』 제2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2, 31~68쪽.
- 김남석, 『2000년대 한국 영화에 나타난 ‘부산 바다’의 이미지 연구: <사생결단> · <마린보이> · <해운대>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463~503쪽.
- 김대성, 『제도 혹은 정상화 지역문학의 역학-“피난문단”과 “무크지 시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3권, 한국문학연

- 구학회, 2011, 35~62쪽.
- 김만석, 『요산과 향파 소설의 공간정치학: 산업화 시대 소설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26집,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1~24쪽.
- 김성국, 『부산인의 개방성과 저항의식』, 『부산 사회문화의 이해』, 부산발전연구원, 1997, 169~182쪽.
- 김승환, 『중원 지역문화사 서술의 방법론에 대하여』, 『중원문화논총』 4집,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0, 1~20쪽.
- _____, 『한국근대소설과 부산의 시·공간성: 김동리의 <밀다원시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9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63~90쪽.
- 김창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창조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1~17쪽.
-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 14호, 인문콘텐츠학회, 2009.3, 229~262쪽.
- 문재원, 『문학담론에서 로컬리티 구성과 전략』, 『한국민족문화』 3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71~97쪽.
- 박기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창의성 구현 전략 시론』,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제4집,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 2009, 36~58쪽.
- 박문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 공동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연구: 대전 대동마을과 프랑스 리옹(Lyon) 벽화 마을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 13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3, 43~61쪽.
- 송희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기획 연구』, 『예술경영』 24집, 한국예술경영학회, 2012, 73~96쪽.
- 양재혁·한영숙, 『행정지원 마을만들기 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2012년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연합논문집』, 55호, 2013년도, 101~110쪽.
- 이상봉 엮음, 『창조성과 도시』, 소명출판, 2013.
- 이상원, 『소설에 나타난 피난지 부산의 다방』, 『동남어문논집』 31집, 동

- 남어문학회, 2011, 129~150쪽.
- 이순옥, 「광복기 경남·부산 시인들의 문단 재편 욕망과 해방 1주년 기념시집 『날개』, 『비평문학』 4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189~226쪽.
- , 「정전체제의 형성과 부산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 『지역과 역사』 32호, 부경역사연구소, 2013, 37~65쪽.
- 이연숙·박재현,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지역자산 기반 재생과정 연구」, 『생태환경건축』,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4, 111~120쪽.
- 이윤선, 『민속문화 기반의 문화콘텐츠 기획론』, 민속원, 2006.
- 이호상·이명아,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나오시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10,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2, 171~183쪽.
- 이화용,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에 대한 재성찰: 다중과 지구적 민주주의」, 『국제정치논총』 제54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9~34쪽.
- 조갑상, 『한국소설에 나타난 부산의 의미』,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9.
- , 「근대 지역문학으로서의 부산-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65~89쪽.
- 조관연, 「‘마을가꾸기 사업’과 부산 안동네 마을의 변화」, 『한국민족문화』 4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263~293쪽.
- 조명기, 「영화를 통해 본 로컬 정체성의 이미지화 양상」, 『부산 시공간』의 형성과 다층성』, 소명출판, 2013.
- 한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4.
- 베네틱트 앤더슨, 윤흥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사, 2002.
-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제국』, 이학사, 2001.
- 에릭 홉스봄, 박지향·정문혁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Abstract>

Imagined Communities, 'Maeul Mandelgie' in Busan and Storytelling

Youn, Ji-young

This study aims to answer to the questions about meaning and worth of literature study and education from the change of times, deepening global capitalism. Whereas literature studies in Busan have been made in all directions ever, it seems less intereste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this city and cultural contents and storytelling business promoted actively by Busan. So it reviewed the proceeding stat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cultural contents and storytelling business, and then provided a theoretical basis for improving the problems. The community design orien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s been by the foundation to make everyday life aesthetically, to put it into parentheses, as a result, residents and their life have been exposed to the risk of being dependent on global capit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agine a community in a new way. According to Benedict Anderson's opinion, it is typography - character culture - novel to contribute to emergence of modern 'imagined communities', 'nation', whereas, it could be a digital media - oral culture - storytelling to contribute to emergence of post-modern imagined communities. Following on the assumptions of the previous, this study suggest the methodology that subject of storytelling can read identity in the difference and appropriate the storytelling to

cultural contents, to find the specific potential, Expanding the scope of literature studies will restructure teaching content of literature into a new direction with being fused practice and aesthetics.

Key Words : urban regeneration project, 'Maeul Mandelgie' Project
aestheticization, imagined communities, invented
tradition, orality, cultural contents, storytelling, literature
education

■ 논문접수 : 2015년 3월 14일

■ 심사완료 : 2015년 4월 14일

■ 게재확정 : 2015년 4월 20일